

주일가정예배

[특수전도주일]

2022년 6월 19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16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6-17)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밤의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 아침의 만나와 저녁의 메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았사오니, 한결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특수전도주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 주님 오실 길을 굳게 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서, 그들이 심은 눈물의 씨앗이 황폐하였던 땅이 복음으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91장 다같이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3.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4.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함께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출애굽기 33장 18-23절 인도자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설 교 『하나님의 뒷모습』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439장 다같이

1.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2.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3.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4.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 (후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안식 얻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2. 차별금지법 등의 성경과 반대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3.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하나님의 뒷모습

출애굽기 33:18-23

이번 시간에는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책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다. 그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 문헌 특히 루터와 칼빈에게 집중했다. 새롭고 순전한 영성을 추구한다면 루터와 칼빈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루터는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며,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주장한 ‘십자가 신학’으로써 자신이 살던 시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도록 했다. 본래 하나님은 피조물이 증명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십자가라는 계시를 통해 알려진다. 십자가 즉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그 누구든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중세의 신학이다. 루터는 영광 신학이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확신했다. 루터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영광의 신학을 거부했다. 하나님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인간의 지혜가 신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함, 어리석음, 비천함과 같은 것들, 즉 십자가의 겸손과 수치 안에 계시되어 있다. 사실 십자가 신학은 낮은 것이며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며 꺼리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 신학의 중심은 기독교론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계시의 신학이다. ▶영광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원편 강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십자가 신학은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던 마음이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 시몬 베유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초자연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고난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신다. 십자가 신학은 믿음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둠을 인정한다. 이성엔 근거한 신앙의 취약성, 경험엔 근거한 신앙의 한계성을 고백한다. 세상의 험한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학은 항상 의구심과 절망에 빠지기 십상이다.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등”이 바로 고난이요 십자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스럽고 연약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성은 이 세상이 장엄하며 영광스럽고 권능이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고통, 슬픔, 절망, 그리고 연약함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길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일하고 계셨다. 다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 참혹한 광경 가운데 숨어서 일하고 계셨음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십자가 아래 자리 잡은 삶, 부활의 여명을 고대하면서 십자가 그림자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삶이다. 십자가는 만물의 시금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초청은 그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배척, 죽음의 길을 지나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고난, 배척당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믿음의 순전함을 보증하는 증명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